

보도자료

2011년 10월 14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장 이상학 (750-2510)
통신정책기획과 황큰별 사무관 (750-2512)

'11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

-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90개, 별정통신사업자 25개,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'11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하였다.
-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.6% 감소하였으며, 전화번호 수는 4,612건으로 15.9% 감소하였다.
-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2만 4,6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.7% 증가하였으나, 전화번호 수는 2,084만 2,056건으로 3.5% 감소하였다.

<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 수사 자료 제공 현황 >

- '11.상반기 기지국수사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(20,567,569건)는 전년 동기(21,306,989건)대비 3.5% 감소

구 분	'09.하반기	'10.상반기	'10.하반기	'11.상반기
요청 문서건수(A)	1,257	1,846	2,150	2,473
요청 전화번호 수(B)	15,440,864	21,306,989	17,399,997	20,567,569

-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32만 6,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.4% 증가하였으나, 전화번호 수는 323만 1,609건으로 13.2% 감소하였다.
-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, 국민의 통신비밀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.

※ 업무 점검 사업자 수 : '09. 반기별 10개 사업자 → '10. 반기별 37개 사업자
→ '11. 상반기 40개 사업자 → '11. 하반기 45개 사업자(예정)

붙임 : 2011년 상반기 감청협조,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1부. 끝.